

## 제34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2. 1. 30(월), 15:00~19:30

2. 장 소 : 율곡관 제1회의실(204호)

3. 참 석 : 강명구 의장, 조중열 부의장, 윤성승 의원, 이순일 의원, 이재호 의원, 이강준 의원, 이효철 의원, 이홍평 의원, 임정민 의원, 김진우 의원, 박윤규 의원, 윤갑희 의원, 김승권 간사

(평의원 13명 중 12명 참석, 강희진 의원 불참)

간사 김승권 : 바쁘신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34차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보고사항으로 제4기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뒷장에 보시면 성함과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구성이 되었기에 의장선출부터 하시고, 의장이 선출되면 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선출은 1페이지 보시면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33조(대학평의원회 의장 등) ①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대학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임시로 지난번 의장님이신 강명구 의원님께서 진행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의원 강명구 : 그럼 제가 의원 자격으로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관해 의장 선출 관련 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 네 없습니다.

[이후 강명구 평의원의 주재하에 진행된 회의 결과 강명구 위원을 의장으로, 조중열 위원을 부의장으로 호선하다.]

< 간서명 >  
강명구 의장

의장 강명구 : 여러 가지 안전 중에 의장단 선출이 끝났습니다. 의장단 구성이 되었으니 한 말씀 드리고 가자면, 들어오기 전에 정관도 읽어보고 대학평의회 관련 규칙도 읽어봤습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평의원회의 Mission Statement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다스림이라는 뜻의 ‘자치(自治)’ 이고 다른 하나는 논어에 나오는 바른 이름이라는 뜻의 ‘정명(正名)’ 입니다. 대학이라는 큰 배움집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우리 대학 평의원회는 대학이 바른 이름을 갖도록 제 스스로 다스릴 줄 알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 하에서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아주대가 큰 배움집으로 사심 없이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각 대표하시는 집단의 이해관계도 대변하시지만 동시에 한 단계 높은 단계에서 아주대가 더 잘될 수 있을까 하는 보편적 생각들을 더불어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와 정명’ 두 가지가 평의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교원대표 대학평의원 선출 방식 개선 요청인데요. 새로 평의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교수대표를 뽑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각 대학별로 대학평의원을 뽑기 위한 추천위원들을 선거하고 추천위원들이 모여서 다시 후보를 모으는 과정이었는데, 각 대학의 추천위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구성된 이후 이구동성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사장님께 드렸던 제언 중 한 가지가 대학 교수 집단의 대표는 각 대학의 대의원들로 구성된 교수회가 있다, 따라서 지나친 행정낭비와 시간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교원대표 대학평의원 선출은 교수회에 일임해 주십사 하고 수차례에 걸쳐 교수 추천위원들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방학 때 모여서 투표하는 일도 엄청난 일이고 대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몇 번의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핵심은 대학평의회 교원대표 평의원 선출 방식을 정관 개정을 해서 좀 간략히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의 안전입니다. 말씀해주시죠.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이번에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작년이 2회였고, 그 전년이 1회였습니다. 세 번 다 추천위원으로 모이신 분들의 의견은 추천위원회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기록을 해냈는데, 추천위원을 따로 뽑고 그 추천위원이 모여서 또 선출하는 과정은 이미 교수회 대의원을 교수들이 투표로 선출한 마당에 그것은 굉장히 낭비다. 그래서 해당 규칙 혹은 규정을 바꾸어서 교수회 대의원회에서 평의원

< 간서명(란) >  
  
 의 장

을 추천했었던 과거의 방식이 대표성 문제도 없고 간편한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는 의견을 세 번의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결의했었습니다. 그게 잘 전달되고 반영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했으니 이제 평의회 이름으로라도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강명구 : 실제로 그것은 교수님들도 투표를 잘 안하시고 엄청나게 지루한 과정을 거칩니다.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다시 모여서 다시 또 투표하고, 이것은 굉장히 문제 있다 싶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지난번 하셨던 것에 대해서 학교 측이나 재단 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나요?

의장 강명구 : 교원대표 대학평의회를 뽑는 과정에 대해서 평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정식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평의원 김진우 : 교수님 대표를 선출하시는 것이면 교수님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교수회가 의견표명을 한다고 해도 지금 교수회와 법인 간의 긴장관계 때문에 얘기가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한시적인 위원회 조직입니다. 추천을 마치면 해산이 되니까 회의록에는 남기지만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추적한다든지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절하게 제언도 하고 계속해서 이 사항을 추적할만한 곳이 결국 평의회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의원 박윤규 : 교수회를 법인 측에서는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걸 두려워서 그런 건지, 힘의 작용을 꺼려하는 건지...

평의원 이재호 : 법인과 교수회 간 갈등이 있었고 지금도 일종의 갈등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교수회 대의원회에서 추천하던 추천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입니다. 지금쯤이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리는 것이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좋은 gesture가 아닐까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강명구 : 지금은 교수회라고 해서 당연히 학칙기구가 되어있고 대학의 정식기구입니다. 예전처럼 임의기구라면 모를까 정식 학칙기구로 되어있는데

< 간서명 >  
의장

교수대표 조직을 넘어서 또 하는 게 낭비가 아닐까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이번 대학평의원 선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에는 선출위원회를 구성했더니 거기서 대학평의원들을 뽑으신 게 아니라 교수회에 일임한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교수들의 대표기구가 선임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 동안 실제 교수회가 대학평의원을 선임해 오고 있는데,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또 필요 없는 긴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을 대학평의원회에서 표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 강명구 : 대학평의원회 의견을 법인 측에 표명하기로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일동 :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다음으로 비중 있는 논의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입니다. 뒤에 첨부 자료 보시면 저희하고 사립대학지원과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여러 번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12명의 법인 이사 중 1/4인 3명을 개방이사로 모시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에는 외부 개방이사를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것이 원안이 되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를 통해서 2007년에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지 않고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정관에 추천위원회 5명을 모시게 되어있습니다. 즉 법인에서 2명, 대학평의원회에서 2명, 아주자동차대학에서 1명으로 총 5분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배수인 6분을 재단에 추천하면 그중에 3분을 재단이 모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아주대학교 평의원회에서 2분의 추천위원을 뽑는 결의를 어떻게 할 것 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말쯤에 재단에서 이게 와서 12월에 회의하면서 자세하게 논의했습니다. 논의내용은 붙임 10페이지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핵심적인 사항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되어있는데, 의장이 중간에 임기가 만료되어 해체되고 다시 제가 의장을 맡는 과정을 겪는 바람에 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던 그 안건을 추진해 주시면 의장

<간서명 란>  
  
의 장

단과 협의해서 추천위원 2분을 모실 것이고 아니면 새로 의장단이 구성되었으니 새로 논의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새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질의하겠습니다. 2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방이사제의 원래 법 제정 취지가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 현재의 규칙에 따라 일을 진행한다면 했을 때 아주대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개방이사가 선임되느냐 하는 실질적인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첨부자료 8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교수 수가 아주대학교는 611명이며 아주자동차대학은 30명으로 비율이 17:1인데 추천비율은 2:1로 한다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개방이사제의 취지 문제도 분명히 다시 곱씹어볼 필요가 있고, 최종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가 과연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결정을 하는가 여부에도 초점을 맞춰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과연 611명대 30명의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아주자동차대학과 아주대학교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아주대학은 펀드투자문제도 겪었고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도 겪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아주자동차대학의 30명 교수들의 주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번 개방이사후보 추천은 기존대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개방이사가 선임되어서는 아주대학교의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라는 의견을 대학평의원회가 이사회에 전달하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평의원 윤갑희 : 지난번에도 그런 논의가 기록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되짚어서 말씀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난번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어서 질문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교수님들 말씀 들어본 바로는 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전체 의원이 공감을 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 비율 문제도 의견을 나누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의장 강명구 :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주대학교 예산은 6,200억이 넘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은 88억이었습니다. 근데 대표 비율은 2:1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과부에 질의를 했고 교과부가 문제있다 협의를 하라했는데 자동차대학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할 수 없다고 그대로 하자라고 통고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단에서 협의를 안하시겠다

< 간서명 란 >

의 장

고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교과부에 재차 질의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하나는 개방이사라는 것은 법인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뽑는 과정에 두 번이나 참여한다. 제단도 참여하고 그 2배수 중에 또 뽑는다. 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2011년 2월에 보내왔던 첫 번째 답변은 ‘문제있으니 협의해라’ 였는데, 이번 두 번째 질의에는 ‘정관대로 해라’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교과부가 했습니다. 조만간 법전원에 계신 윤성승 교수님께서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부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쨌든 사립대학지원과에서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 이번엔 그대로 하고 지금 논의할 사항은 33차 평의원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의장단에게 위임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 논의하실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십시오.

평의원 박윤규 : 위임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의장단 인원이 바뀌었으면 다시 하겠지만 대부분 그 분들 이시니까 위임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의장 강명구 : 지난번 33차 평의원회 결과를 추진하도록 할까요?

일동 : 네

의장 강명구 : 감사합니다. 통과된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 중에 일단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련 내용만 빼고 자문사항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입장)

의장 강명구 : 저희 교원대표들은 2차에 걸쳐 모여서 미리 다 봤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요.

의장 강명구 : 네, 병원 밑에 임대사업수입 내역에 대한 자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추가자료 배포해주시죠.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저희가 현재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아시다시피 임대라는 것이 쌍방 간 계약인데 계약상의 비밀도 있고 그것을 다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저희가 요청 드렸던 것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정확히 요청사항을 다시 읽어드리면 ‘의료외 수입 중 임대사업수입 내역(임대계약자 상호, 위치, 면적 포함)’ 그러니까 간단한 리스트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어차피 이게 그거 아닌가요? 임대계약자 상호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시한다는 것 자체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일 텐데요.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직접 보여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의원 이재호 : 최소의 information 입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현재 저희로써는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저의 소관도 아닙니다. 예산의 각각을 계약하고 운영하는 쪽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자문 받는 것 자체가 예산(안)이나 추가경정예에 대한 예산(안)이지... 저희로써는 그래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산추경에서 수입으로 얻은 금액하고 전출금, 임대 포괄적으로 지하1층에 있는 임대 업소에 대한 뭐 그런 정도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평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 요청자료를 설명드리면 병원 지하에 여러 가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가게들의 면적하고 액수를 알려달라고 요청드린건데 지금 알려주시기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금 말씀하신건 제가 잘 이해가 잘 안가는 게, 저희한테 주신 의료원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 5페이지를 보시면 의료외수입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자문을 하려면 어떤 항목의 액수 얼마가 과연 타당하나, 수입을 늘릴 여지는 있느냐, 지출을 줄일 여지는 있느냐, 지출 내역이 타당하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추경예산(안) 내역에 안 들어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타당하겠지만, 양쪽 자료 모두 5페이지에 보시면 의료외수입은 주차 및 임대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문을 하려면 임대사업 수익 내역이 무엇이고 저희가 판단할 때 상식선에서 이것이 타당한지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인지 당연히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강명구 : 액수가 꽤 큰데요. 69억7천만원이고, 장례식장은 29억으로 되어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리고 예결산 자료를 만드시는 부서에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면, 이 예산(안)을 어떻게 만드시죠?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각각 개별적으로 계약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

< 간서명 란 >

의 장



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각 건마다 계약을 한 것을 더해야 얼마가 나오겠죠.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아 물론 그렇죠.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을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저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저희가 제출을 해야 하는지...

평의원 이재호 : 자문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자문을 한다고 해서...

의장 강명구 :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칙 10조 보시면, 출석 및 자료요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1항 평의원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교원, 직원 및 학생을 평의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관계 교원, 직원 및 학생이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별한 사유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저희가 예산을 짜거나 할 때 구매관리팀이라든지 임대사업파트에서 하는 사업운영팀이나 이런데서 오는 자료들을 모아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고 임대가 어떻게 되었고 하는 것을 정확히 저는 알고 있지도 않고 기획팀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평의원 이재호 : 없습니까? 그럼 누가 파악 하고 있습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아시다시피 병원 내에 구매관리팀이라든지 사업운영팀이라든지 이런 팀들에서 주로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임대계약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임대계약은 법인 쪽하고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법인이 계약을 하고 액수만 알려줍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법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 명의로 하는데 사업운영팀에서 계약을 하죠.

평의원 이재호 : 사업운영팀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그렇죠.

평의원 이재호 : 그런데 예산 편성하거나 추정하거나 결산하실 때 사업운영

< 간서명 란 >

의 장





팀이 이거다 하고 액수만 얘기하면 그것만 받으신다는 건지요?

의료원 예산 담당 조철우 : 저희들이 실적에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실제 저희가 계약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는데 더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처럼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평의원 이재호 : 그럼 우선 시작을 하시고요, 사업운영팀에 연락을 해서 중간에라도 리스트를 받아오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그것은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 영업비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 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은 의사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예결산 자문을 받으러 오시면서...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예결산 자문사항에 그런 것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아까 저희가 위촉 받으면서 총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대학 평의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틀테면 입법기관이 하는 것처럼 실제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했을 때 그것을 보고 자문할게 있으면 자문하자는 것으로 총장님도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렇게 예산이 짜였다면 그 예산이 타당한가 하는 근거를 봐야겠죠.

의장 강명구 :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그것은 제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런 사안입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그러면 평의원회에서 직접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했습니다. 이수영 선생, 전달했습니까?

기획팀 이수영 :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했습니다. 평의원회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다시 하셔야 한다는 의미인 듯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아니 잠깐만요. 의사결정이라니요? 자문을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있죠? 자문을 받는 건, 누가 우리한테 자문을 받는 건가요? 병원장

< 간서명란 >

의장



님이 오셔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자문이라는 것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저희가 따라야하는 것인지...

평의원 이재호 : 근데 내역이 없는데 정확한 자문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현재 저희가 추정이나 예산 잡은 액수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총액을 말씀하신 건데요. 그 총액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 액수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의장 강명구 : 의료 외 수입이 183억4천4백만원입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차 및 임대사업 수입이 69억7천만원, 장례식 운영 수익금은 29억인데 이렇게 큰 돈을 병원회계처리에서 잘 모르신다면 잘 이해하기 힘든 과정이 되겠죠.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모른다는 것이 각 계약상황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도 아니고...

평의원 이재호 : 부대계약까지 알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몇 평 얼마, 몇 평 얼마 그냥 그것입니다. 그 정도를 자문 받는 상황에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 제출을 해야 한다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니거든요.

평의원 이재호 : 의사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아시다시피 저는 아닙니다. 의료원장이나 병원장이십니다. 기관장이 결정을 하셔야겠죠.

의장 강명구 : 같은 의미로 아주대학교 측에서는 의사결정자는 총장이지만 기획처장이 나오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주대학교대학평의원회 규칙 제10조(출석 및 자료 요청) 제1항에 서면으로 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저희는 요청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아까 여쭙봤습니다.

평의원 이강준 : 지금 포인트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기초실장은 본인의

< 간서명란 >

의 장



업무가 아니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수영 선생님께서는 사업팀장께 전달하셨습니까?

간사 김승권 :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로 행정적인 전달들은 진행했고, 판단은 의료원에서 하는 겁니다.

평의원 이강준 : 지금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주관부서는 어디냐는 거죠. 이쪽 기획팀 쪽은 아니라는 건데요.

평의원 이순일 : 그건 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기획처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구매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는데, ‘이건 구매팀에서 하는 거라 나는 답변을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산을 짜신 부서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평의원 이강준 : 지금까지의 논점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있는 것 같아요.

의장 강명구 : 의료원 기초실장님께서서는 병원의 큰 흐름은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큰 흐름이라는 것이 어차피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저희로써도 최대한 많이 올려서 받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러나 임대수입 자체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전체적 액수를 얘기할 수는 있지만 평당 얼마를 받느니 하는 구체적인 계약상황을 공개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의원 자문에서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저희가 다 내야 되느냐...

의장 강명구 :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팀장이 주신 것을 보면 각 건물들 지을 적에 언제 누가 지었고, 평수가 얼마고, 평당 취득가액이 얼마라는 것을 다 밝혀주셨고 저희는 이것을 밖에 얘기한적 없습니다. 이것이 비싼가 싼가, 개선점이 무엇인가, 학생 등록금으로 지은 건물인데 될 수 있으면 싸고 좋은 건물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말씀 드렸더니 다 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좀 지나친 요구를 드렸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는 것은 학생들과 상관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학생 말씀하실 것은 없고요, 어쨌든 이런 자료들은 상대방 계약자가 있고 상호간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

< 간서명 란 >

의 장

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 가지고 오라고 order를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권자이신 병원장과 의료원장과 상의를 해서 오케이가 나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금 당장 의사결정이 안되었으니 돌아가서 확인하셔야 한다면, 의사를 확인하신 후 다시 자문회의를 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문의원으로 어떤 숫자가 주어졌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모르면서 자문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드리고 마련해오시면 되고, 안되면 글썽요 저희가 판단을 해야겠죠.

평의원 윤성승 : 상호를 공개하기 어려우면 A-면적, B-면적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호부분을 익명처리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업종은 여기 말씀 드렸고요.

의장 강명구 : 제 기억으로 예전에 임대사업수입에 대해서는 거의 액수가 다 밝혀졌고 어디가 어떻게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단지 명확히 하는 수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183억이면 액수가 적지도 않습니다. 다는 필요 없고 이재호 의원님 꼭 알고 싶은 것이 지하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평의원 이재호 : 지금 사실은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곳은 지하이겠죠.

의장 강명구 : 기타 임대사업수입 증가가 13억6천2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더 증가가 된 것인지, 어디서 얼마큼 왜 들어오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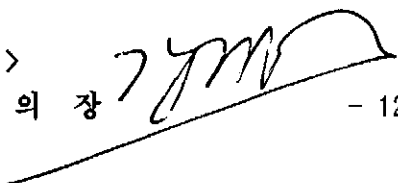
평의원 이순일 : 본예산(안)에 기타 임대사업 수입 증가가 13억6천2백만원입니다. 갑자기 면적이 늘어난 건지, 평당 가격을 올리신 건지?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답변 자료에 드린 것처럼 그것은 상가임대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상가임대도 있지만 그것은 예산보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작년보다 예산을 이 정도 만큼 적게 잡았습니다. 의약품 실거래가 시행이 되면서 약품 delivery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오는 것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을 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전보다 수입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저희가 창고를 하고 정부기관에서 인정이 되는 것에 대해 허용이 되는 면도 있고 해서, 그것이 예년에 비해서 적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잡았을 때보다 수입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산자문을 하면서 임대수입을 심

< 간서명 란 >

의 장



몇억을 줄이고 액수를 0원으로 처리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의약품 실거래제가 실시된다고 해도 거기에 해당하는 품목이 있고 아닌 품목이 있기 때문에 0으로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자문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자문의견을 낸 것이 맞다 라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했고요, 결국 문제가 되는 내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거기에 있어서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 거죠?

의장 강명구 : 추가답변 13번 보면 ‘임대계약 상호 및 위치는 대부분 병원 본관동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과점, 식당, 과일, 매점, 안경점, 일식,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전부입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상호까지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 열 개쯤 되는 게 아니라 다 하나씩입니다.

의장 강명구 : 이해하지만, 자문을 위해서는 계약 액수를 알아야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잠깐 평의원회 자체 논의를 한 후에...

의장 강명구 : 자문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자체 논의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근데 그것을 저희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를 제출하실 것인지 여부를 우선 의료원 기획팀에서 결정하고 나서 저희가 태도를 정하는 겁니까?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사실 어느 정도의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왔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어느 정도인지 discussion을 했고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각 개별 점포의 계약까지 일일이 리스팅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장 강명구 : 계약금이 바로 공공조직이라는 대학의 예산에 편입되어있기 때문에...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예산 편입된 액수라든지 그런 건 여기 답변을 드린거고요, 여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도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제가 안 됩니다 뭐냐 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의장 강명구 : 잠시 5분 동안 휴회하고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

< 간서명 란 >

의 장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퇴장)

[약 5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입장)

의장 강명구 : 다시 회의를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논의한 결과 말씀해주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임주자 신상에 관한 개인적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명을 A, B 등으로 표시해서 임대차수입, 법인전입금, 법인으로 들어간 돈과 의료원에 남은 돈 이 정도로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의료원에 대한 예산 자문은 다음번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초실장님 말씀해주시죠.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A,B로 표시해서 각각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장 강명구 : 임차인의 권한과 학교의 여러 가지 개인정보 등을 고려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떠한 액수가 얼마큼 법인으로 갔고, 임대차수익이 어떤식으로 병원에 남았는가 하는 사실관계 확인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것도 힘들시다면 의료원 자문을 다음번으로 미루어야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셨습니다.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조기홍 :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요 자료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시 상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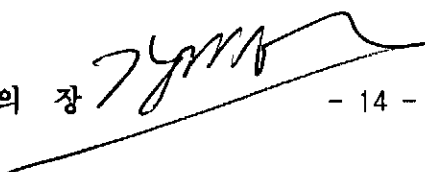
의장 강명구 : 의료원 자문은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일동 : 네

의장 강명구 : 기초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퇴장)

의장 강명구 : 지금 기획처장님이 학생대표와 면담중이라고 해서 그 사이에 아까 안전 중에서 미루어졌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내용을 잠시 질문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팀장님 나와주시죠.

간사 김승권 : 지금 국제협력팀은 팀장이 없고 책임과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조중열 교수님 핵심안전만 한번 말씀해주시죠.

부의장 조중열 : 질문은 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중국 학부생들하고 밥을 먹으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올 때 학원 같은 알선기관을 통해야 한다는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올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수수료가 일반사람들 3달치 월급이 된다고 해요. 미국으로 가는 학생은 그 돈을 안내고 한국으로 오는 학생들만 낸다는 거예요. 알선하는 학원들이 홈페이지에 무엇을 올려놓았느냐하면 자기네 학원들이 협약을 맺은 한국대학들 리스트를 올려놔서 좋은 학원은 그 리스트가 아주 많고,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아무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장 강명구 : 아주대학교하고 유학송출업체와 유학생 사이에 이해하기 어려운게 있단 소리죠?

부의장 조중열 : 중국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근로자들도 그런 게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윤규 회장님 잘 아실 텐데요. 근로자들도 그것을 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평의원 윤갑희 : 미국으로 유학할 때는 돈을 안내는데 라는 말은 그쪽으로 개인적으로 한다는 소리인가요?

평의원 윤성승 : 학교별로 apply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한국도 그게 가능할거 아닙니까?

부의장 조중열 : 그게 안된다는 거예요.

의장 강명구 : 제 느낌에 그것은 서로서로 간에 입장이 맞아야 할 겁니다. 저희가 가서 학생 유치하기 어려우니까 중계업자를 통해서 중간에 받고 그렇게 하는 걸로 될겁니다.

평의원 윤성승 : 그러면 학교하고 그 업체하고 배타적으로 거래한다는 계약

< 간서명 란 >

의 장



이라든가 뭔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 조중열 :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그분 오시면 일단 들어보죠.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입장)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안녕하세요

의장 강명구 : 네 안녕하세요. 질문내용 읽어보셨죠?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네 읽어봤습니다.

의장 강명구 : 짤막하게 답변해주시죠.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첫 번째 질문주신 내용이 ‘중국학생들이 아주대 학부생으로 입학할 때 입학알선기관에 거액의 수수료를 낸다는데 사실인가요, 거기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지원하는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인데요. 현재 국제협력팀장이 공석이어서 작년 10월부터 제가 과장으로 책임담당을 맡고 있는데, 이 질문을 받고 현재 외국인 학생 유치현황을 좀 더 조사해봤는데 학부로 입학하는 경우는 대부분 한국어학당에서 6개월이나 1년간 공부를 하고 입학처에서 공식적으로 유학생 유치 편입이나 신입과정 모집전형을 할 때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는 외국인 에이전트와 국제협력팀이 연관이 되어서 입학하는 경우는 없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모집전형에 따라 입학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에서 학생이 에이전트에 돈을 준 다든지 에이전트에서 학생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한국의 대학들이 그부분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핵심은 아주대학교와 중국의 에이전트 사이에 어떤 계약체결이나 돈거래 같은 것은 없죠?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학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에이전트에 직접 주는 건 없고요, 한국어학당이나 대학원 과정에 들어올 때는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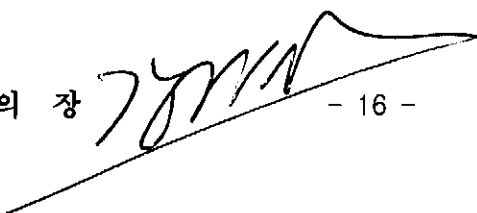
부의장 조중열 : 보통 학생들이 어학당을 왔다가 여기서 학부로 입학을 하는 거죠?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네 맞습니다.

부의장 조중열 : 그러면 여기 어학당을 올 때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여기 아

< 간서명 란 >

의 장





주대학에 낸다는 뜻이 아니고 중국학생이 중국기관에 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빠져있는데 만약 이런 관행이 있다면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저희들이 추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국의 학생들이 중국의 대학을 통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유학을 가능 방법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중국 대학들이 해외대학에 유학을 보내는 지원을 할 때 대학 자체에서 학생들에게 일종의 비용의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국돈으로 200만원 정도도 대학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부의장 조중열 : 중국에서 200만원이면 엄청난거죠.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그것은 사실 한국의 대학들이 중국의 대학들에게 받으라 말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중국의 관행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 조중열 : 중국학생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한국에 올 때는 그 수수료를 내는데 미국에 지원할때는 개별적으로 지원하게 되어있다는 겁니다. 왜 중국 학생들이 아주대학에 개별적으로 인터넷 지원 할 수 없게 되어있죠?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베트남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개별 지원하고 저희가 받습니다. 혹시라도 중국학생들이 느끼기에 개별 지원하면 저희가 안 받아준다라는 인상을 안 남기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중국유학원에서 아주대학교와 관계가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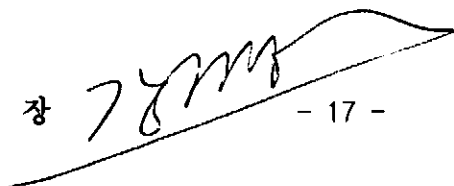
부의장 조중열 : 그건 학부하고 대학원 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학원은 제 생각에 별 문제가 없는데 학부에는...

평의원 이순일 : 학부 유학에 그런 혐의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학당으로 오는 경우는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어학당에서 유학원과 연계가 되어있다면, 어학원이 결코 아주대학교의 입학은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명분으로 저쪽에서 돈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확인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학당에

< 간서명 란 >

의 장



서는 현재 중국에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사람들의 역할은 외국인학생을 모집하고 우수한 학생들이 아주대 어학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생들로부터 얼마씩을 받는 상황은 아닌데 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아주대학교에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건가요?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한국어학당에서 지급합니다. 한국어 어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모집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학생 모집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나요?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학당에서 정책적으로 향후에는 유학알선기관을 좀 더 활용해서 학생을 더 많이 모집을 해오는 경우에는 커미션을 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어학당이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의 2명의 활동가들에게 그렇게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한국어학당이 아주대학교의 이름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있습니까?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한국어학당에서는 무제한적으로 아주대학교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조중열 : 한국어학당은 국제협력팀 윤과장님 지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기관인가요?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별개입니다.

의장 강명구 : 어학당원장은 교수님 아니신가요?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문승재 교수님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아주대 어학당이 아주대학교 부속기관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유학 수수료가 아주대학이 입학허가를 내주는데 관여해서 받는 돈의 일부라고 인식이 된다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중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중국학생들이 개별지원을 못한다고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 간서명 란 >

의 장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개별지원 못한다고 학생들이 알고있으면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대학원의 경우는 일반대학원이 아니고 특수대학원에 한해서 모집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그런 사실을 중국어 홈페이지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히는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받고, 학생들이 개별지원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왜 이 질문이 나왔을까 궁금했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중국인 학생들에게 개별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정보를 제공했다라면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보고 왜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의장 조중열 : 그럼 어학당으로 가는 것은 개별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개별적으로 갈수 있고, 에이전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 자기가 소속된 대학을 통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러면 어학교육원하고 어학당하고 다른겁니까?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한국어학당이 작년 직제개편이 되면서 어학교육원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어학교육원은 아주대학교 부속기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네 맞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학당에 입학을 받으려면 당연히 아주대학교와 연관되어있는 것처럼 혼돈할 수 밖에 없죠.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두 번째 질문이 ‘중국의 전문대(3년제)를 졸업한 학생들이 한국대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난해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일단 수 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주대학교가 적극적으로 중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질, 국가의 다양성을 같이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들이 과거에는 특정지역에서 많은 수의 유학생을 유치해와서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있습니다. 현재 국제협력팀에서는 중국의 우수 유학생을 적정인원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대학에서 어떠한 학생들을 고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 간서명 란 >

의 장



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은 중국이나 특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국가에서 골고루 받는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부의장 조중열 :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맞는데,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비로 오겠다는 학생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정부 정책과 상관없지 않나요?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유학생 관리 인증제라는게 도입이 되었는데요. 대학에 소속된 외국인 학생들이 어느국가에서 많이 왔느냐가 다 점수화 되어서 어느 특정 국가에서 학생이 지나치게 많이 있으면 평가에서 오히려 나쁘게 작용하기 때문에 학생은 우수한 학생을 받으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조중열 : 아주대 직원이 현재 중국에 나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현재 아주대 정식 직원이 나가있는 경우는 없고요, 3번째 질문과 연계가 되는데요. ‘산동성은 한국과 가까워서 한국 유학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산동성에 아주대 교수나 직원을 상주시키는 계획은 어떤건가요’ 인데요. 일단 이 질문 자체에 대해서 국제협력팀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두 번째 질문과 같은 이유에서 지금 당장에는 저희 학교의 직원이나 교수님들이 특정 지역에 파견이 되어서 그 지역의 학생을 대규모로 데려오기 위해 활동하는 것은 제약이 많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중국 학부 학생들이 올 때 해당 학교에 돈을 낸다고 했는데 학부라고 하는 것은 교환학생을 얘기하는 건가요?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윤정용 : 학위과정으로 오는 경우에도 돈을 내고요, 심지어 교환학생으로 오는 경우에도 그쪽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대학의 시스템이 저희들과 왜 그렇게 다른가 봤더니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모티베이션이 그렇게 학생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고 거기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 적용되는 툴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경우에 많은 부분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국제협력팀 책임담당 퇴장)

(기획처장 입장)

의장 강명구 : 바쁘신데 준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학년도 교비 회계 본예산(안)을 시작하기 전에 3차 추경(안)을 먼저 자문하겠습니다. 추경먼저 하고 2012학년도 예산을 자문하겠습니다. 5분 내로 요약해 주시고 필요한 것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안) 자문해 주시죠.

[기획처장이 2011학년도 교비회계 3차 추경(안)에 대해 보고하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평의원 이순일 : 본예산에서 같이 질문 드리면 안 됩니까? 나올 질문이 하나는 법정전입금이고 하나는 기금에 관한 것인데 어차피 본예산에서 논의되지 않습니까?

의장 강명구 : 2쪽에 나와 있는 경상비 전입금 감소가 1천7백만원인데 이것이 문서로 왔습니까? 아니면 말로 하신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법인에서 저희 학교로 통보해주셔야 하는데 문서가 가장 적합한 것이기에 저희는 문서로 요청을 했지만 통보 방법에 구두로 통보하는 것도 통보라고 하시면서 구두로 알려주셨습니다.

의장 강명구 : 평의원회 이름으로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리세요.

평의원 이순일 : 2011학년도 3차 추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법정전입금에 대한 것일 겁니다. 형식적인 내용이 되겠지만 법정전입금을 다 납부를 안하신겁니까?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9억5천5백만원입니다. 내야 할 돈이 32억7천6백만원이니까 23억이 덜 들어온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퍼센트로 하면 29%가 들어왔고 71%가 안 들어 왔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명확히 기록에 남겨 주십시오. 질문하는 것은 자료11에 있

< 간서명 란 >

의 장



는 내용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서도 나오지만 총수입을 얼마로 잡으면 그것에 맞게 지출계획도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71%의 법정전입금, 즉 23억을 안내게 되면 원래 예산도 그것에 맞게 작성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됩니다. 예산에는 잡혀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23억은...

기획처장 김민구 : 본예산에 잡지 않았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추경에 없는 것이지 본예산에는 있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닙니다. 본 예산에도 잡지 않았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2012년에는 잡으셨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은 의대포함 한 것이고 저희 본교는 9억5천입니다. 그 전년도에는 5억 잡았습니다. 그것도 늘어난 것입니다. 받을 것 예상하고 예산을 짜야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제가 2차 추경 자문을 안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12년도 예산에서 법정부담전입금 15억을 잡은 것은 실제로 재단이 안 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15억을 잡은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문서로 달라고 하는데 재단에서 계속 구두통보도 통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회에서도 자문을 하셨는데, 구두통보로 한다고 하니 어쨌든 2012학년도 법정부담금 15억원은 1월10일에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behavior를 보면 과거에 의료원에서 넘어온 돈을 우리한테 주었을 때 받았다가 안 되어서 그때 한번 취소한 적이 있고 구두로 통보했을 경우 대부분 줬습니다. 예산을 짤 때 그렇게 짜야지 법정전입금 주지도 않을 것을 그렇게 짤 필요가 없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경상비 전입금은 작년에 대폭 줄이셨죠?

기획처장 김민구 : 경상비 전입금은 그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 땅을 사서 팔면 그걸 줍니다. 땅을 팔게 될 경우 경상비가 늘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줄어듭니다.

의장 강명구 :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향신문 2011년 12월 신문을 보니 한국의 대학교 법인들이 법정전입금으로 부담한 액수의 평균이 학생1인당 평균 40만원입니다. 저희가 재학생이 최소 8천명이라면 전국 평균으로 잡더라도 32억은 당연히 재단이 내야합니다. 또 질문해 주십시오.

< 간서명란 >

의 장



- 22 -

평의원 이순일 : 원 예산에도 9억5천으로 잡혀있으면, 등록금 심의를 할 때 학생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까?

평의원 이재호 : 2011학년도 재단 경상비전입금 지원내역과 관계해서 숫자를 찾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총동문회 행사 지원비 5백만원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내역 주신 것에는 5백만원이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총동문회 5백만원과 경영대학원동문회 1백만원 해서 6백만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알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예산 전용을 보면 목간전용이 많은데 이것은 이해를 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목간전용이 많은 것입니까? 통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렇게 되면 무엇이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목간 전용을 저희도 굉장히 줄인다고 줄이는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또 질문해 주십시오.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 질문 없으시면 2012학년도 본 예산(안) 자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1607억3천4백만원이 수입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일이 다 열거하지 마시고 큰 흐름에 어떻게 짚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방향은 어떻다는 큰 흐름만 말씀해주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받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기획처장이 2012학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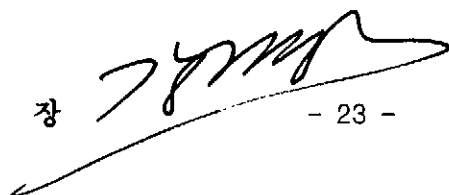
기획처장 김민구 : 질문해주십시오.

의장 강명구 : 어려워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예산 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질문해주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이번 예산은 제로 베이스에서 짜신 겁니까? 3~4년전 인데 기억하시겠지만 전년도 예산대비 몇 프로 삭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은 문제이니 제로 베이스로 예산을 짜야한다는 자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올해는 제로베이스를 더 줄였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2페이지 표를 보십시오. 저는 물리를 하는 사람으로 묘하게 일치하는 실험데이터가 눈에 띄게 나오면 의심을 합니다. 제가 숫자를 불러 드릴 테니 한번 보십시오. 총 수입예산이 66억2천5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미사용 전기 이월자금이 66억원 줄었습니다. 등록금 수익이 20억원 줄었습니다. 학부 등록금이 20억원 줄었습니다. 일반대학원이 1억5천원 줄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1억5천만원 늘었습니다. 특수대학원이 2억2천만원 줄었습니다. 수강료수입이 2억2천만원 늘었습니다. 숫자 쌍이 이렇게 5개가 동일하게 나올 확률은 수학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짰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제로베이스는 줄였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상태에서 모든 예산 수요를 창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가 어려울 적에 지난번 관행과 많이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제로베이스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말씀하신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금 예산안 2페이지를 보시면 15, 15, 22, 22, 208, 208, 66, 66 이란 숫자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봐서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해서 예산을 짜신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숫자는 결국 맞춰놓으신 것이겠지만. 누구든 수학을 아는 사람에게 우연히 이렇게 될 확률을 계산해 보라고 하시면, 거의 로또와 같은 수준이라고 할 겁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우연의 일치입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이 이렇다 해주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일반대학원이 1억5천만원 줄어드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 1억5천만원 늘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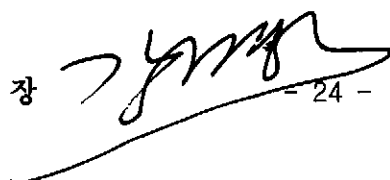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지만 숫자가 1억5천 밑에 가면 1억5천2백이고 1억5천5백 아닙니까? 이것을 맞출 수가 있습니까?

의장 강명구 : 기획처에서 2012년도 예산을 짤 때 위기상황이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예산을 짰는지 지난번 예산에서 대충 맞추어서 짜고 나중에 0으로 숫자를 맞추신 것이 아니신지 그런 말씀이십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럴 수는 없고 그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 간서명 란 >

의 장



- 24 -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3년치 평균 같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제로베이스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크래치부터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제로베이스라고 해서 스크래치로 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산을 짤 이유도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도 굉장히 애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일은 없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60억을 건축해서 예산을 짜시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그 와중에 국제학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투자라고 보입니다. Priority에 있어서 국제학사가 가장 시급하다는 결정은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외국인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기숙사가 없어서 임대비용으로 나간 것이 약 20억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임대료라는 것이 외국인 교수의 임대료입니까?

의장 강명구 : 임대료가 아닌 전세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습니다. 전세금이 20억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물론 단순히 중앙일보 지표나 이런 지표뿐만 아니라 학교의 아주비전 2023도 있고 우리가 글로벌화 하는 단기목표가 기숙사가 없기에 활성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민자 기숙사 얘기도 계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민자 기숙사 유치하는 것은 무리다 생각하여서 400명 규모의 기숙사로 우리 돈으로 우리가 아껴서 기숙사를 짓자 라고 결정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400명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닙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50대 50으로 수용할 생각입니다. 다만 이름을 국제학사로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이름을 국제학사 대신 국제문화관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작명이 된 것은 아닙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들이 50대 50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받아들이겠다고 하여서 내국인학생도 고려하고 가능한 차별을

< 간서명 란 >

의 장



하지 말자고하여 50대 50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아까 말씀하신 임대 보증금으로 2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외국인 교원 중에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이 40~50명 정도 됩니까? 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기획처장 김민구 : 외국인 학생을 데려와서 둘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학생들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지금 국제대학원 외국인 학생들,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에게 나가는 보증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교수님들은 20명 안 됩니다.

의장 강명구 : 제가 국제 대학원장 할 때에도 교수님들은 저희가 많이 오시면 방을 구해 드렸습니다. 학생들에게 전세금 빌려주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학생들이 일반학생들은 아닙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학생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간을 대여합니다. 원룸을 대여를 해서 학생들에게 1실에 5명, 6명, 7명 이렇게 배치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수혜자가 부담할 것이지, 교비 예산에 비용을 발생시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관리비는 학생들이 직접냅니다. 저희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부담시키면 외국인 학생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좀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반반이라 하셨는데, 이번 신축에 들어가는 재원이 등록금에서 적립된 기금이라면 결국 국내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적립한 돈을 가지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의 주거비 일부를 보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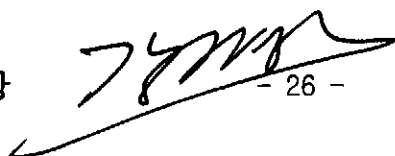
예산팀장 조정숙 : 한국어학당에서는 한국어학당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 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만큼을 운영수지 분석할 때 포함시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도 여기에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여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어학당 재원도 교비

< 간서명 란 >

의 장



- 26 -

회계이기 때문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재원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렇다면 그 돈은 어학당의 비용으로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가 받은 오버헤드중의 일부를 추출하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어학당의 당해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기금적립 한 것을 인출해서 충당하기도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한국어학당도 교비회계입니다.

의장 강명구 : 아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어학당이 정식 아주대학교 기구나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부속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보충해준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실제로 임대되는 비용과 학생들에게 회수하는 비용의 차이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한 80%정도 회수가 됩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기숙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학교가 돈을 내서 임대해서 기숙사 대신 빌려서 수용하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좋습니다. 국내 학생들은 기숙사 금액이 30만원이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인 30만원을 다 내는 것이지 학교가 보전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기숙사 확보가 어려워서 외부를 통해 거주지를 얻어주고 해당 관리비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주거의 유형은 어떻든지 간에 주거비용이 100이 발생하면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이 얼마나 라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학교내부의 기숙사의 비용과 같은 정도의 상당액을 외국 학생들이 부담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학교에서 내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게 계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기숙사가 상당히 쌉니다. 관리비만 내게 되어있는데 한 달에 많이 내는 곳이 십 몇 만 원 내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것보다 많이 내고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지금 back-data 자료를 가져올 것입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27 -

평의원 이순일 : 제가 기억하기에 아주대학이 기숙사를 지으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지으면서 비용의 1/3은 교비로 내고 1/3은 기숙사비를 올려서 부담하고 1/3은 재단에서 부담하여 지었습니다. 이런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국제학사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때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립해서 만든 기금을 사용하여 새로운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부담자와 혜택 수혜자가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못할 일은 아니고 정책상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공개적으로 동의를 얻고 할 일이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동의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등록금 심의위원회나 대학평의원회에서 사실 그런 것이 논의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 안건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교비라는 것이 등록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등록금이 아닌 학교예산 중의 오버헤드도 많습니다. 이것을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과 상의하고 의논해서 등록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1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건축기금적립에 보면 등록금 회계 43억2천만원 기금회계 7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재원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까? 등록금회계가 43억2천만원이면 등록금으로 말하면 6%입니다. 그것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43억원을 적립하기 위해서 몇 퍼센트의 등록금 인상요인이 유발된 것이고 몇 퍼센트는 오버헤드 등 다른 재원에서 적립되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기금적립은 재원을 밝히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과연 기부금에서 건축기금으로 얼마를 적립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지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등록금 회계라는 것이 순수하게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도 그것은 이해합니다. 예산을 짜고 등록금 심의를 할 때

< 간서명란 >

의 장



그것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43억원 중에 어느 정도 portion이 등록금에서 나오는 것인지 밝혀주셔야 합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처럼 전체 수익대비 등록금 수입만큼의 비율만 여기서 강조된 것인지 윤곽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저희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세세목 raw-data를 가지고 등록금심의위원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금에 대한 적립금의 portion은 저희가 일 년의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적립할 수 있는 것이며 어떤 재원으로 건축기금을 적립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등록금 재원과 특수대학원의 오버헤드를 포함하고 특수대학원의 운영차익 등의 재원으로 건축기금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난번부터 등록금 또는 예산에 대해 논의하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입과 지출간의 정합성을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 지원을 받으면 해당 사업의 성격상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다른 용도로는 얼마를 어떻게 쓰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 등록금 중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적립액이 얼마인지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수입원과 지출간의 정합성을 찾아주면 조금 더 저희가 납득하기 쉬울 것입니다. 오버헤드 수입 중 얼마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를 적립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이런 자료 보다는 더 디테일 한 것을 말씀 하시는 거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재원별로 지출항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평의원회에서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를 합쳐서 교비회계라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교비회계를 설명 드린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학생들에게 나오는 돈은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특수대학원에서 나오는 돈이 학부모 흘러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보다 교육에 들어가는 것은 더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하면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한 번 더 명시를 해주십시오. 돈 출처와 쓰임새 사이에 성격상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자료 가져오셨으면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부서별 임차계약 현황입니다. 한국어학당이 8억이고 교수님들이 14억입니다. 그 외 어학교육원 등 1억 포함하여 23억원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비용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전세보증금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한국어학당 연간수입을 과거에는 1억원 안팎으로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최근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8억원이라는 것이 어학당 관련한 임대 보증금이면, 이게 어학당 수입의 계정에서 나가는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한국어학당 계정은 아니고 본부에서 관리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요즘은 기금도 구별해서 적립하고 각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기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금은 물론 등록금회계에서 나오는 이자도 다른 용도로 쓰이면 안 되기에 질의 드린 겁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어디서 나왔는지 스토리는 알아봐야하는데 8억이라는 숫자는 저희가 운영수지 분석 할 때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정도는 한국어학당에서 매년 운영수지 차익을 계산 할 때는 연간 5%에 대한 비용을 부담 시킵니다. 수지 분석을 할 때는 이자비용만큼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8억은 과거 수년간 쌓여있는 보증금이라서 당해 연도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평의원 이순일 : 비용 부담 5%가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추가비용까지 고려하여 10%를 물릴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특수대학원 수입이 저희학교 수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특수대학원 등록금이 218억이니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저희가 재정이 모자라는 가운데에서 재원 다변화 확충이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유일하게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수대학원이며, 그 다음이 한국어학당입니다. 특수대학원과 한국어학당이 본교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데 과연 적절히 기여하고 있는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이미 몇 년 전에 처장님께 말씀드렸었고, 처장께서는 이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고 하셨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특수대

< 간서명 란 >

의 장



- 30 -

학원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대학원이 몇 군데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가 수익을 창출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어학당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축소제로 가고 있습니다. 수익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여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제화입니다. 국제화는 지표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비전에 대한 미래도 달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가 단순히 교육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에서 얻어내는 사업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순일 의원님의 핵심은 어려운 경제사정 하에서 특수대학원이면 특수대학원, 어학원이면 어학원에서 산출되는 재원이 정확하게 출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항목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거 아닙니다.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특수대학원은 그곳에서 수입과 지출을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네

평의원 이재호 : 그러면 학교에는 어떻게 기여를 합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오버헤드로 30%를 내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것은 특수대학원 종류와 관계없이 30%로 일정합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현재 특수대학원들은 일률적으로 30%를 오버헤드를 내고 있습니다. 비학위과정은 부분별로 다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비율을 갱신 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현재는 그것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30%를 정하면 30%만 내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우리학교의 몇 개 대학원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특수대학원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올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차등화 하여서 돈 많이 버는 곳은 더 내게 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오버헤드를 조금 더 건으려고 할 때 문제 되는 것이 무엇이나

< 간서명 란 >

의 장



- 31 -

하면 비용을 제하고 오버헤드를 건게 되면 비용을 더 많이 써서 0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닙니다. 실제로 매출의 30%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지금 대충 30%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학비감면을 제외하고 30%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13페이지 보시면 특수대학원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학홍보비 증가 1억4천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수대학원에서 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이 받은 오버헤드에서 안 내는 것이 확실합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오버헤드에서 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특수대학원의 운영부서에서 쓰겠다고 해서 낸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예산결산은 합쳐서 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 십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네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18억이 매출기준이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네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학비감면은 장학금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 매출 대비 누락 없이 총액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네, 수입과 지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30%이면 한 60억 들어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50억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에 특수대학원들이 자기 기금을 쌓습니다. 그것이 누구 돈이든 간에 종합관 지을 때 한 층당 30억씩 냈습니다. 4층이니까 120억을 낸 것입니다. 평당 8백만원씩 부담 한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잘하시는 것,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다각도로 연구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다음 이슈로 넘어가면, 국제학사 신축 같은 경우도 대학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인데 대학평의원회가 미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화지표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100% 동의하느

< 간서명 란 >

의 장



- 82 -



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캠퍼스플라자 임대 건도 마찬가지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캠퍼스플라자 임대에 대해서 학교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예산안을 보면 6개 층 임대 보증금 20억이 들어올 것이고, 보증금 이자 수익이 3억원일 것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마스터플랜 없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6개 층을 임대 하는데 층당 3억3천만원을 받으면 적절한 것인지? 누가 검토한 것인지? 무슨 근거인지? 어떤 층을 임대하는지? 그냥 큰 덩어리 숫자 20억을 6으로 나누는 것은 편차가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임대 보증금 20억원을 투자해서 3억원의 수익을 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15% 수익을 내는 계획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기획처장 김민구 : 사실은 임대 수익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임대를 나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플랜은 하지만 임대를 직접 주는 것은 총무에서 직접 줍니다. 저희가 터무니없이 플랜을 하지는 않습니다. 기획팀장이 간사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사 김승권 : 지금 캠퍼스플라자가 지하1층부터 지상9층까지 있는데 현재 학교가 4개 층을 쓴다는 가정 하에 6개 층을 배분 한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는데 말씀하신대로 1층부터 9층까지 임대료가 다 다릅니다. 임대료 산정 내역은 전국 평균도 있고 수원지역과 학교주변 정보를 최근에 저희가 부동산으로부터 받았습시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하기 위해 받았습시다. 현재 캠퍼스플라자를 임대를 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여러 가지를 종합하여서 산출한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서 조심스러웠던 것은 저희가 해나가는 것과 부동산 이라는 것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산출한 것은 전국 평균이나 수원지역 평균 등을 각각 산정하여서 잡은 내용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학교가 직접 임대하실 겁니까? 저희가 경험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간사 김승권 : 그 당시 저도 기획처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시다. 단지 2개 층을 임대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통으로 임대를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난번에 전체를 일괄해서 임대했다가 더 실패한 것 아닙니

< 간서명 란 >

의 장



까?

간사 김승권 : 그것이 아닙니다. 총무팀과 협의 중인데 음식점 같은 곳은 배제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이 같이 들어와서 그런 문제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장 강명구 : 캠퍼스플라자 임대가 되면 어느 층에 어떠한 업종이 들어왔고 임대수입이 얼마큼 나왔다는 것을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간사 김승권 : 예산에 잡힌 내용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이것은 총액이라는 거죠. 20억의 수입 공백이 생기면 전체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 김승권 :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변수라는 것이 지금 기관과 협의 중인 것이 있는데 그 기관이 갑자기 틀어버리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변수가 임대하고자 하는 기관의 정책변화에 따라 계획이 완전히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려사항입니다.

의장 강명구 : 나중에 임대수익이 창출되면 어디서 얼마쯤 돈이 나왔는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럼요.

평의원 이순일 : 결국은 20억원 맡기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3억원 수익이 나려면 수익률이 15%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아닙니다. 20억원으로는 5% 이자율을 반영하여 1억원에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기존 기금에서 추가로 2억이 늘어났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희 기금이 그렇게 늘었습니까? 이자가 더블이 될 정도로 늘었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더블이 아니라 전체 예금이자수익이 전년대비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등록금이 줄고 했으니, 다른 예금이자는 거의 전년도와 비슷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기금이자가 늘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어떻게 해서든지 운용을 잘해서 이익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11페이지에 운영비 주요 증(감) 요인을 보면 기부유치 전

< 간서명 란 >

의 장



문 인력 1.5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발전본부에 지금까지는 발전팀이 기금을 관리하는 위주의 성격이었지만 총장님이 오시면서 1-1-1부터 확충하면서 건물, 연구동이나 이런 기금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11억 정도 증액하려고 합니다. 일단 인력을 성과기반으로 가긴 할 것인데 이것이 1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네 사람 정도입니다. 전문 인력은 두 명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전화 받는 것도 예전에는 알바를 사용했는데 콜센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모금하려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5페이지 기부금수입 주요 내역 표를 보시면 40억원이 있는데, 내역 중의 많은 것들이 그 분들의 활동과 관계가 없습니다.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그분들이 얼마의 기부금 수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내역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일반 자유기부금 5억8천만원과 대학/학부 발전기금 4억...

평의원 이순일 :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일반 자유기부금이 지금 얼마 들어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지금 전체적으로 40억 잡았는데 일반 자유기부금이 588백만원 정도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증가액은 4억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지금 절대 비교 데이터가 없어서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GM-Track 제5기생 장학금부터 금융기관 기부금 수입은 과거에도 들어왔던 기부금입니다. 일반자유기부금과 굿은 선 밑에 학생행사지원 기부금부터 삼성 STP만 빼고 나머지는 발전본부가 전체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하겠다고 하는 기부금 내역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특수대학원 관련 부분은 어차피 특수대학원 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예산팀장 조정숙 : 아닙니다. 특수대학원 발전기금이 아니라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기부 유치입니다. 수입자체는 전부 다 기부금 수입입니다.

의장 강명구 : 특수대학원 별로 모아서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활동차원의 대상이 특수대학원 동문들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3억 정도 될 것입니다.

의장 강명구 : 1억5천만원 들어서, 본전도 못 뽑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맞습니다. 저희도 걱정은 하면서 투자하는 것이라 연말에 결과를 놓고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실제로 총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돈 좀 많이 가져오셔야 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40억원 정도는 총장님이 가져오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강명구 : 기획처장님이 10억 정도 가져오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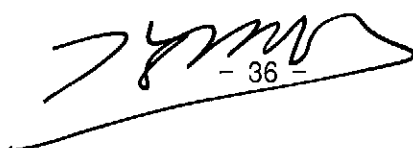
평의원 윤갑희 : 궁금한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 보니까 장비 및 기타시설관리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밑에 세부사항을 보니까 대략 왜인지는 알겠는데 특별히 늘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하나 여쭙고 또 하나는 11페이지 보시면 홍보비와 14페이지 보시면 교육용기계나 실험 실습 집기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액수는 큰 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5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구입비 이런 것들이 percentage로 따지면 등록금 인하 하는 것에 몇 배 이상 줄었습니다. 액수는 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것에서 아껴 쓰시고 이런 것은 줄이지 말고 늘려야 교육의 질이 좋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15페이지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법전원을 만들면서 도서비가 한 번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가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처장님,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당장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자저널 구독과 관련한 공지를 띄워 놨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그렇지, 다른 것을 줄이면 줄었지 어떻게 전자저널 구독을 줄인다고 하고, 교외접속이

< 간서명 란 >

의 장



- 36 -

안된다고 하는지, 이런 것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윤갑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학이 교육하는 곳인데, 도서관입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은... 도서관입 예산은 다른 항목들과 비교해 보시면 푼돈입니다. 정말이지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들께 보여드리려고 스크린에 띄웠다가 지금은 닫아놓았지만, 2월 1일자로 전자저널의 교외접속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전자저널이 무엇이 문제이나하면 독과점거래를 하는 있는 중간상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널 구독료를 20% 이상 인상시키고 있어 현재 도서관장님이 중심이 되어 해결안을 찾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사안의 핵심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ACS 저널들입니다. American Chemical Society 저널들이 비싸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미국화학회는 세계에 하나 밖에 없으며, 거기서 학술지를 내면서 구독료를 비싸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독료를 협상하는 것은 협상하는 것이고, 협상을 위해 당장 2월1일부터 전자저널의 교외접속을 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작감을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대학정신을 생각한다면 가장 후 순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도 크지 않은데 줄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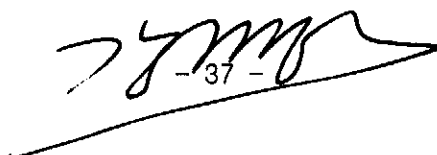
기획처장 김민구 : 네, 알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고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도서관장과 조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거래도 얘기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한 업체가 매년 일방적으로 값을 굉장히 많은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도서관장이 중심이 되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몇 번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비에 17억 정도가 증가 한 것은 인조 잔디 건설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고 축구 발전위원회에서 돈을 내고 교비는 약1억 5천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하여서 잔디 구장을 만들기 때문에 17억 정도가 듭니다. 우리가 작년에 축구 우승을 했는데도 대학에 잔디구장이 없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구장을 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

< 간서명 란 >

의 장



고 아까 말씀 드린 기기 구입 같은 경우는 약대를 만들면서 기기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ACE사업에서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ACE사업 하면서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를 확장하는데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해년도까지는 봐주는데 그것을 줄여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대비 많이 줄어들게 된 원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전기료, 난방비, 이런 것들은 요즘 국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늘릴 만큼 다 늘린 것 같고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책 사는 값은 줄었다 이렇게 보여 보기가 안 좋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저도 보니까 10페이지에 인조잔디 건설비는 4억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도서구입비는 1억5천만원 감소되어 어떻게 보면 인조잔디 건설이 도서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꼭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예산을 더 주신다고 하는데 도서관장이 반대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은 아닐겁니다.

부의장 조중열 : 국제학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몇 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쓰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건설과정입니다. 지난번 종합관 건설하는 과정을 보면 주체는 총무처에서 다합니다. 그런데 종합관 건설과정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종합관 3백몇십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한 부처가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건물 발주하는 과정을 기획처에서도 역할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의장 강명구 : 기획을 짜시고 실제로 발주하고 건물감독하고 하는 것은 총무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의장 조중열 : 지난번 종합관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합관 입찰 들어오고 나서 하루 만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두 업체 간의 금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자를 결정하는 회의가 7~8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아주대 건축학 교수는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성균관대, 경희대 건축학 교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다른 학교의 심사를 나가보면 '몇 번째로 드릴까요' 그렇게 합니다. 밖

< 간서명 란 >

의 장



에서 온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의견 제시를 잘 안하는 법입니다. 3백억 짜리 건물의 입찰을 결정하는데 아주대학교 교수가 2명 들어갔다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이 갑니다. 지난번에 진흥기업에서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아주대학교는 30년 사이에 대우건설, 대창기업, 대우자판 외의 다른 외부기업에서 건물 지은 곳이 있습니까? 30년 동안 아무도 안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려면 돈이 10~15%가 들어간다는데 그 돈을 내고 어느 할 일 없는 건설회사가 입찰을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총무처에게만 그것을 맡겨놓은 것이 개선의 기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개방을 해서 다른 부서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총무처장님을 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같이 한번 모시도록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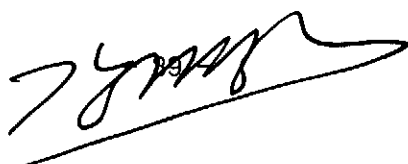
기획처장 김민구 : 저희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고 가능하면 심사위원 구성을 할 때 누가 봐도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변명을 한다면 실제로 과거에 건물을 대우그룹이 지어서 기부체납 할 때까지는 건축비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시다. 평균보다 비싸게 지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으로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의 우리학교가 학교 돈으로 짓기 시작 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낙찰을 받고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업체가 똑같이 가는지 비슷한 몇 개의 업체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저도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정 위원회나 교수회나 평의회에서 관여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조금 더 평이하게 또 그게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가 숨길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합니다. 총무처장님 오셔서 그런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총무처장 입장)

기획처장 김민구 : 우리학교 교내 교수가 2명 밖에 참여를 안하는데 외부 교수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겠냐 그러니 심사위원들을 교내 구

< 간서명 란 >

의 장



성원들을 많이 해서 조금 더 투명하게 하자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부체납을 하던 당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기획처장 김민구 :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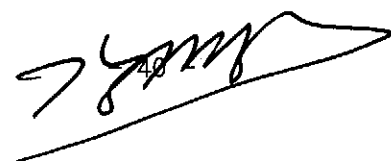
평의원 이순일 : 평당 건축비를 계산해 보면 외부의 비슷한 크기의 건물에 비해서 평당 건축비가 많았던 적이 상당히 다수 있었습니다. 건축비에 관한 자료를 찾아 정리하면서 그런 전례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는 그런 일이 많이 교정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최저의 공사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아직도 의문이....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지만, 저희가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과 공사 발주가 여유 있게 진행된다는 가 절차 하나하나가 공개된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의장 강명구 : 예를 들자면 종합관이 328억3천4백만원이 들었는데 입찰공고는 지난번에 경기일보에 조그마하게 기사가 난 것이 전부입니다. 여기보시면 건물 취득가액과 평당 취득가액을 보시면 약학관이 평당 463만원, 실험동물센터는 587만원, 웰빙은 482만원, 종합관 422만원, 신학생회관은 506만원 이것이 2007년입니다. 시공사는 대우자판, 대창, 대우자판, 대창, 대우자판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대학평의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2년 3월에 국제학사를 착공하겠다고 예정이 되어있는데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신문에는 어떻게 내실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돈으로 짓는 것인데 싸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 이준섭 :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입니다. 학교 건축비 문제는 평의원님들 우려하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없던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 학교 측 공식 입장은 건축비가 조달청 공사비보다도 훨씬 적게 든 것이고 평의원회나 교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과는 다르다는 해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평당 취득가격은 공사비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는데 혼용되어서 문제제기가 된 것은 이미 해명을 드

< 간서명 란 >

의 장





렸습니다.

의장 강명구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취득가액과 공사비는 차이가 많이 납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네, 그 차이가 많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가 지불한 돈은 취득가액이죠?

총무처장 이준섭 :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은 설계비와 순수한 공사비 이외에도 인허가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세스 비용 등 공사비 외의 비용을 포함한 비용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평당 건축비가 4백만원이라고 했을 때는,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감리까지 들어간 겁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감리까지 들어간 겁니다.

평의원 이순일 : 설계비까지 모두 계산을 합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예컨대 신학생회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강당 수선비까지 공사비에 포함이 되어 산정이 되어서 순수공사비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는 평균 350만원 정도를 순수한 공사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일이고 앞으로는 건설공사의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사업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고 문제제기를 하셔도 좋은 사항입니다. 적어도 공사비만큼은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일단 기획에서 기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설계와 관련해서 현상공모를 합니다. 설계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회사를 입찰을 받아서 응찰된 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회사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설계회사는 설계를 한 후에 설계예가를 제시를 합니다. 예가라는 것은 예컨대 건물의 내부 마감재를 시멘트로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경우의 부품 하나 하나마다 단가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총무처에서 설계회사가 선정한 예가를 가지고 시공예산을 입찰에 붙입니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계회사가 선정이 된 후에 설계회사가 선정한 설계 안을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에 붙여집니다. 설계회사가 설계한 설계 예가보다 가장 최저가로 예시한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우자판이나 대창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우려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의 경우처럼 지명경쟁입찰 방식을 하지

< 간서명 란 >

의 장



않을 것이고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이고 공개경쟁입찰에서 선정된 회사는 공사가격을 최저가로 쓴 회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대찰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의장 강명구 :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총무처장님보다 학교를 일찍 왔는데 설계는 전부 서울건축이었고 건축은 당연히 대우자판 전부다 그랬습니다.

부의장 조중열 : 지난번 종합관 건설 과정을 보면 일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찰을 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분들이 미리 사전검토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3백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설계선정위원회나 시공사를 선정하는 위원회가 제 느낌으로는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설계를 볼 줄 아는 건축학 교수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대표도 들어갈 수 있고 전자공학을 하는 제가 들어가더라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위원회를 구성방식에 건축과 교수만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로 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때 보면 6~7명 정도가 선정을 했는데 아주대 교수는 2명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 있는 방법입니다. 차라리 타 전공이라도 아주대 교수를 시공사 선정하는 것에 넣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죄송합니다만. 시공사 선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선정 합니다.

부의장 조중열 : 그럼 회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의장 강명구 : 지난번 312억짜리 종합관 건물 입찰 차이가 얼마 났는지 아십니까? 4백만원 났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예정 낙찰가에 공사를 따가는 회사가 숫자를 맞추면...

총무처장 이준섭 : 설계는 우리가 건축위원회에서 설계입찰 관련해서는 정성적인 평가도 하고 정량적인 평가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입찰을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받아쓰는데 거기에 의하면 최저가 입찰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회사를 선정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입찰은 전부 외부위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를 제시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을 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4백만원 적게 써서 낸 곳이 있었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평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부의장 조중열 : 올해 국제학사가 1백몇십억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독점적으로 하던 회사들을 제외한 다른 회사를 넣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특별하게 대창기업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지명 입찰을 3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다른 중견 기업들 중에서 3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 회사들만 내라고 하고 그 사람들에게 3개의 기업에만 요청서를 보냈다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번 국제학사에 관해서만은 좀 특별히 그런 조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설사들이 30년 동안 안했는데 왜 들어가겠냐 이겁니다. 설계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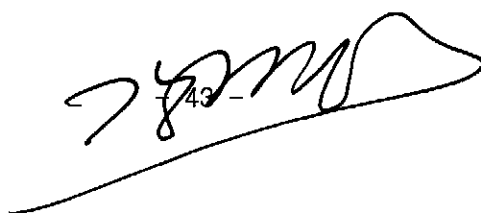
총무처장 이준섭 :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창이 공사하는데 당초 계약 공사비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약대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까 파자마자 암반 때문에 지하1층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암반을 뚫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것을 못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의장 조중열 : 한 번도 안파보고 건물을 짓습니까?

평의원 박윤규 : 설계를 할 때 지질공사가 들어갑니다. 땅이 모래땅이나 암반이나 탐색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설계회사의 책임입니다. 평의원님들 원하시는 얘기가 앞으로는 3개 회사를 배제하고 설계회사도 바꾸고 좀 공평하고 적나라하게 펼쳐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전달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도 차액이 별로 없다고 하시니까 최저가가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최저가로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나오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감리도 있겠지만 저도 공장을 두어 곳 지어 보다 보니 겪어봤지만 공사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모두가 공감을

< 간서명 란 >

의 장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만 재탕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다음에 공사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의장 강명구 : 총무처장님,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건축위원회와 건설 위원회에 평의회 또는 외부 대학 구성원들을 필요시 참여시키겠다. 제가 항상 관심 두고 있는 것이 학생 등록금입니다. 어렵게 벌어서 냅니다. 건설하는데 학생등록금도 상당 부분 들어가는 것 유념해 주십시오.

총무처장 이준섭 : 참고로 건축위원회 구성은 기획처 소관이고 입찰할 때 선정하는 과정은 총무처 소관입니다. 평의회에서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러면 중간 중간 단계마다 평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지금 입찰이 들어가는 구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 중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십시오. 신뢰가 형성이 되면 쓸데없는 일들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거나 공사결과 하자가 있었다든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상당히 신뢰를 못 얻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뭔지 모르게 이상하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경기대에서 기숙사를 지을 때 모 건설에서 하였습니다. 모 건설에서 상당히 많은 학교의 많은 공사장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문제가 최저가로 들어와서 생긴 문제입니다. 최저가로 들어와서 소송을 제기해서 공사비를 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서 다양한 요소들을 전부 고려해서 평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수용을 해서 적절하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면 저희 우려를 잘 이해 못하실 것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지은 평당 450만원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앞에, 나무심고 조경하고 해서 평당 건축비가 비싸다는 똑같은 설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지난 십여년 사이의 건축비 상승을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평당

< 간서명 란 >

의 장



450만원짜리 건물이 아주대학교에 지어졌다는 것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의장 강명구 : 만일을 약속해 주십시오. 건축위원회와 건설사 선정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하셨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건축위원회는 제가 약속해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약속드립니다.

의장 강명구 :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소통의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신 김에 10페이지 보시면 시설관리용역비가 45억7천5백만원으로 4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주차관련입니다. 지금 주차관리는 주차비를 받아서 회사가 이윤을 남기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병원도 그렇고 큰 그림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처장 이준섭 : 주차관리 대행회사가 1년 대행료를 지불을 하고 자기가 주차료를 받아갑니다.

의장 강명구 : 이윤이 많이 남습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이윤이 남으니까 해왔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해에 들어오는 출입하고 출차한 차의 수하고 우리가 발행한 출입증하고 하루에 1천원씩 받은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산정을 해서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산정을 해서 우리가 받는 대행료를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시설 용역비 4억은 그게 아닙니다.

의장 강명구 : 주차에 관한 것은 어느 항목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6페이지 보시면 증명 및 사용료 수입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정과목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희의 주차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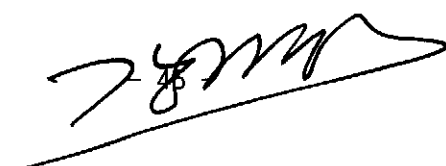
총무처장 이준섭 : 저희가 일 년에 4천5백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병원하고는 별개입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병원은 더 받을 것입니다. 올해부터 병원과 연계해서 운

< 간서명 란 >

의 장



영을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럼 증명 및 사용료 15억9천1백만원 이것이 주차요금 인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여기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4천5백만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회사에게 우리학교 내의 주행차선과 주차면을 전부 다시 그리고 보행로의 속도제한표시 및 과속방지턱 표시 이것을 모두 그동안 돈을 벌었으니 (10년 정도 운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공사를 좀 하라고 했더니 비용이 1억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다 부담할 수는 없고 깎아달라고 하여서 산정을 한 결과 올해는 2천만원정도 깎아주었습니다. 올해는 2천4백만원 정도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가 주차비로 돈을 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4천5백만원이 출입관리비용 인니까 주차비용입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차단기를 설치하고 우리가 받으면 주차수입을 하루에 천원씩 받는다고 하면 벌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대행을 맡기고 대행하는 회사로 하여금 당신들이 하루에 천원씩 주차료를 받고 수입 중에 우리에게 적정한 수입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주차관리를 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대행회사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대행회사 사람들이 따르는 규칙이 있습니까?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알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수들이나 학생들에게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어디까지 통제를 하고 누구한테 어디까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르는 규칙이 있습니까?

평의원 이재호 : 출입관리만이 아닌 주차관리까지 하는 겁니까?

평의원 이준섭 : 주차관리 라는 것이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규제라고 보기는 뭐합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규제입니다.

의장 강명구 : 어떤 식이냐면 외부 용역 업체한테 학교 대지의 주차할 수 있는 관리권한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것을 총무처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있다, 누구는 델 수 있고 누구는 델 수 없다, 이런 관련

< 간서명 란 >

의 장



- 46 -

규칙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저희들의 주차관리는 예를 들면 이쪽 주차장이 만차니까 어느 주차장으로 가시면 하실 수 있다는 유도를 하는 차원이지만 주차관리 요원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는 주차할 수 있고 여기는 주차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물 앞 마다 장애인 주차면은 몇 개 한다든지, 여기는 누구를 위한 지정석이고 지정의 사유는 무엇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규칙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자의적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곳은 10면의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고, 어떤 곳은 이유는 모르지만 3면의 주차면을 못쓰게 된다면, 그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규칙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의장 강명구 : 지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우리학교가 수용하는 주차대수는 몇 대인데 현황은 어떠한지, 어디에는 어떤 차를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운동장 밑으로 한 몇 층 파서 그곳에 주차하고 교내로는 차 못 들어오게 하고 운동장 위에는 잔디 구장 깔고... 등등 돈은 얼마가 들고... 이런 것을 바쁘시겠지만 해주시면 원칙도 생기고 그럴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알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4천5백만원이라는 것이 월 3백7십5만원 받는 것이고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하루에 12만5천원 정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학교 차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걱정합니까? 하루에 12만5천원정도 밖에 비용이 안 나오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들어가면 한 시간에 만원을 낼 정도입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무료주차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하루에 천원이면 무료이나 비슷한데 이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은 서울과 같이 적절한 가격을 매겨서 주차료를 부과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추후에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반발도 굉장히 심합니다. 학생들이 장기주차를 하거나 차를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저희학교 주차는 선착순이 원칙입니까?

총무처장 이준섭 :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처장님 말씀처럼 빈자리에 세우면 되는 것입니까? 예외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장 강명구 : 다만 예외를 두십시오. 이사장님 자리 하고 총장님 자리는 예외를 두십시오.

평의원 이순일 : 규칙을 만들어서 공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자리라는 것도 알텐데 규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총무처장 이준섭 : 주차관리를 하는 규칙을 만드는 근거가 마땅치 않아서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학한 후에 주차면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산학협력관, 원천관, 동관, 서관이 주차면이 너무 적어서 그곳에는 교수 우선주차구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의장 강명구 :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총무처장 퇴장)

평의원 임정민 : 16페이지 예비비 예산에 대해서 여쭙보고자 합니다. 본부와 단과대 합쳐서 300%가 증가 되는데 사용되는 예산이 어느 부분이길래 300% 증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처장 김민구 : 예비비는 보통 2011년도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액수가 아마 8억 정도 되었습니다. 계속 예비비를 씁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쓰고 남은 예비비가 2억2천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305%가 증가가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작년도에 비해 증가한 예비비는 작년에 8억6천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6천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우리학교 규모로 봤을 때 예비비는 적은 것입니다. 단순히 2011년 예산이 아니라 3차 추경 후의 예산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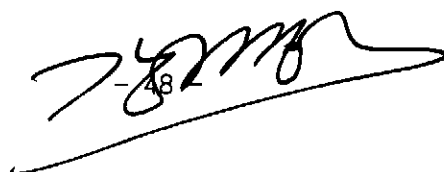
평의원 임정민 :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가 줄어들었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차이나 보입니다. 6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의원 이순일 : 9페이지에서 교원 및 직원 보수에 관한 것을 여쭙어 보려

< 간서명 란 >

의 장





고 합니다. 정규직원부터 보시면 신규채용을 4명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 3명, 홍보직 1명, 퇴직이 2명입니다. 얼핏 생각했을 때 이상한 부분이 정년퇴임하시는 분들의 봉급이 7천5백만원이면 한 분당 3천7백5십만원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규로 4명을 총원하는데 1억4천4백만원이면 한 명당 보수가 3천6백만원입니다. 정년 퇴임하시는 분들에게 임금이 3천7백5십만원 발생했는데 신규채용하면서 한 사람당 3천6백만원입니다. 직급차이가 있을 텐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살펴보니 홍보직 한명이 있어서, 혹시 이분을 경력직을 뽑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홍보는 전문직이라고 해서 예전에도 저희가 그런 분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분은 일반직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만일 홍보가 필요하면 그 분을 다시 불러서 쓰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직원부터 말씀을 드리면 퇴직 2명이 8월에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8월까지의 급여가 나갑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일 년 예산의 반만 나가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한 학기 분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홍보직을 따로 뽑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홍보직 1명을 구분해서 모집하고 이를 구분하여 표기한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다른 직급이라는 말씀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직급은 다르지 않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러면 학교에서 홍보직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신분이 있는데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 뽑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실제로 우리학교의 홍보시스템이 지금까지는 홍보전문가가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김은희 선생 아래서 같이 일했던 분도 다수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우리가 홍보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홍보가 광고하고 이런 것만 했습니다. 이제는 의료원에서 우리가 홍보팀장을 데려오면서 미디어쪽 신문이나 언론 쪽에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홍보직에서 뽑는 분은 디자인하고 영어 능

< 간서명 란 >

의 장



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영어능력은 대외협력처에서 팀장님 같은 분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아닙니다. 실제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할 때 콘텐츠에 있어서 직접 기술적인 것 보다는 영문 홈페이지 구성 같은 글로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무처장께 물어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홍보직을 뽑을 때 스펙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한다는 것을 일반직과 홍보의 스펙을 달리하여 따로 뽑았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분은 일반직으로 안 가십니까? 결국은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이 다른 분들과 섞이길 원하십니까. 그런 답답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가를 모시면 나중에 보면 결국엔 다시 뽑아야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가 예를 들면 전산직 같은 경우 보면 전산직에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일반직으로 갔으면 승진도 하고 하는데 전산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트렌드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기획처장 할 때부터 특별한 직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직군대로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지 일반직이 아니면 불행한 것입니다. 사실은 학교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여길 못가서 불행하다 진급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 직군을 만들려고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도 홍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강명구 : 제가 볼 때에 학교가 많이 어려운데 홍보, 영어, 세계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분들로 버틸 수 있고 지금 연구교수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정기적으로 전문직을 모셔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비 4천5백만원 줄이면서 다른 분으로 대체 가능한 인력을 새로 채용하는 것은 문제있을 수 있다는 문제제기입니다. 똑같은 문제제기를 제가 학장시절에도 얘기했습니다. 글쓰기 관련하여 사람들 없어서 뽑느라고 애먹었는데 법전원 교수님들은 책임시수가 모자라서 편법을 썼습니다. 기초교육대 가서 가르쳐 달라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끼고 효율성을 높여서 대학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평의원 이순일 : 또 하나 전임교원 신규 충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학생경비가 남아서 이월하면 다른 것으로 못쓰도록 지정이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전임교원에서 보면 전임교원 보수가 늘어난 이유 중에 신규 아래 괄호를 보시면 이월TO 9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전년도에 안 뽑은 TO가 넘어 온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TO를 이월 시킬 때는 그 명목으로 잡았던 보수도 이월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29명을 뽑는다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10명만 뽑고 19명을 뽑지 않으면 그 돈이 그대로 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써버리면, 총액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전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굉장히 항목도 큼니다. TO를 이월했으면 그 사람의 보수로 잡았던 예산도 지정해서 이월해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본예산을 책정한 시점이 교수님 임용시기와 비슷합니다. 이월TO도 거의 확정이 된 부분만 들어가고 아직도 이월TO가 있는데 못 뽑은 학과나 전공이 있습니다. 그 전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이월TO가 있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TO를 이월 시킬 때는 9명에 해당하는 보수도 이월해야지 차 년도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예. 미충원한 교원에 대한 보수를 이월시킬 수도 있으나 보수 항목의 미집행 또는 과도한 이월금액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여기에 이월TO가 9명이면 결국 3차 추정까지 9명을 안 뽑은 것 아닙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2011년도 본예산에 9명의 TO가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는 프로세스에 이월TO가 한해년도 이월이 아니라 누적되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과거에 누적되는 예산을 같이 가지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총예산을 말씀입니까? 총예산을 다 가져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어차피 신규임용 예산을 잡았다가 어디선가 꼬여서 계속 누적되는 것 아닙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률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월분이 많아지면 지적사항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29명을 신규채용하신다고 하셔서 8억6천5백만원의 예산이 잡힌 건 데 임용 안하고 4억만큼 인건비가 안 들어갔으면 그것만큼 예산에서 덜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안한 예산이 잡혔으면 그 돈은 그대로 가져가야 합니다.

평의원 이재호 : 말씀을 조금 바꿔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명 정도 계획이 있다가 통상적으로 10명을 다 채우지 않으면 그것을 몇 명 정도로 산정하십니까? 기준이 있으십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임용 단계가 지금은 한 달 앞당겨져서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2학기 충원 하실 분만 미확정 단계입니다. 저희가 전체 프로세스에서 90%이상은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의장 강명구 :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사람 안 뽑으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평의원 윤성승 : 2학기까지 충원이 안 되면 예산을 어떻게 처리 합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총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실제로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쓴 것만큼 남는 것은 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 년도에 본 예산에 잡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가면 제3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결산서를 보면 아무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교과부나 정보를 이용하는 관계자는 보수를 과다하게 편성했다, 예산이 많이 남았다, 결국은 이래서 등록금을 올렸다고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중간에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사업으로 쓰는 것 보다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건축기금 적립 한도를 다 충족하지 못해 건축기금적립에 충당을 했습니다.

의장 강명구 : 잘 알겠습니다. 넘어갈 적에 꼬리표를 잘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평의원 이순일 : 지금 말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기금 적립을 못했으니 보수 남은걸 거기에 쓰면 된다, 이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나중에 얼마가 이월되었다고 해도 허수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는 가지지 않습니다. 실제 필요한 인건비를 잡아서 쓰는 것이 원칙이고 남으면 다음에 그 돈을 가

< 간서명 란 >

의 장



지고 사람을 뽑겠다, 그래야 그 다음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그 명분의 등록금을 더 내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총원 미충원 인원 발생하면 잡혀있던 예산은 결산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꼭 필요한 용도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표기를 한다는 뜻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우는 꼬리표를 달아서 이월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추경에서 없애고 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꼬리표를 달아서 가는 것이 과연 좋을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장 강명구 : 꼬리표는 2년만 달면 됩니다.

평의원 이순일 : 3년 동안 못 뽑으면 그 TO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평균적으로 3년 이상 갈 일이 없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그것은 최근에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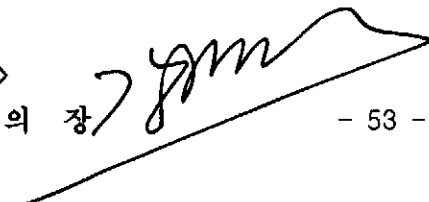
평의원 이순일 : 앞으로라도 조금씩 개선해 가도록 저는 제안 드린 겁니다.

의장 강명구 : 잠깐만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시부터 시작해서 4시간째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생각해서 핵심적인 사항들 질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평의원 김진우 : 한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교육부대수입에 입시수수료가 대학원, 특수대학원해서 3천2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3페이지 보시면 입시관리비가 1억6천만원 증가했습니다. 6페이지 수입에서 보면 대학원, 특수대학원 입시수수료가 3천2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지출을 보면 1억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가한 요인이 특수대학원 신입생 유치를 위한 입학홍보비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해야하는 부분인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는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것인지 질문 드리고 또한 가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페이지 보시면 특수대학원 등록금 수입이 약2억2천만원 감소합니다. 예산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익이 생겨야 하는데 사용예산은 증가하고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기획처장 김민구 : 특수대학원은 독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 입학 수수료만큼 입시에 쓰라는 법은 없고 각자의 예산을 가지고 더 쓸 수 있습니다. 좀 더 활성화하고 encourage하려고 홍보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특수대학원은 독립 운영되므로 자신들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활성화하기 때문에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수대학원장들이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저는 특수대학원 수입은 무조건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입시수수료는 증가시킵니다. 그러면서 입학금은 동결하는 겁니다. 이럴 이유가 무엇이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4페이지 보시면 학부와 일반대학원의 입학금은 동결하고 수업료는 3%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업료를 3%인하한 대신에 특수대학원의 학비를 동결했으면 입학금은 조금 늘려도 됩니다. 3%내린 것은 동결했으면 동결한 것은 올려도 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하는 정당성은 없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정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대학원은 Cash Cow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게 말하면 특수대학원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도 인하해야지 왜 동결하냐고 할 수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논점이 거기 있습니다. 일반대학원생이나 학부생에 비해서 특수대학원생은 부담능력이 더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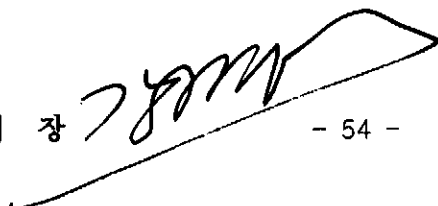
기획처장 김민구 : 특수대학원의 등록금이나 입학금을 올려서 더 많이 받으면 저희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특수대학원 나름대로의 자기 것을 가지고 등록금이나 입학금을 결정을 합니다.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의원 김진우 :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특수대학원의 입학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홍보 예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지를 여쭙보고 싶은 겁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아까도 말한 것처럼 특수대학원은 독립운영 되고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다. 옛날에는 비교적 나름대로 우리의 시스템이 인정되어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은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시장개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의장 강명구 : 상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평의원 임정민 : 큰 것은 아님니다만 12페이지에 학생지원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지원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부분의 예산이 줄어들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학생지원비는 학부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전체적으로 총괄되어있는 계정항목입니다. 저희가 2012학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기본 테마는 운영성 경비에 대해서는 10% 하향 조정을 한다는 큰 원칙을 정하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에서 쓰는 사업비라든지 기타 여러사업비는 가능한 모두 10% 인하를 하였습니다. 학생 경비안에서도 운영성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지도비, 학생행사지원비 이런 항목들을 10% 하향 조정을 절대적으로 다하지는 못했지만 숫자를 보시면 5천8백만원 밖에 인하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10%였으나 그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단가를 낮춰서 모든 사업비를 합친 숫자가 이 금액이 됩니다.

평의원 임정민 : 등록금심의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벚꽃축제 계정신설이나 대동제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현재 벚꽃축제는 1천만원 예산편성을 했고 대동제는 3천2백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대동제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지금 3천2백만원 증액을 시켜서 7천6백만원정도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것처럼 두 배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전년도 대비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줄이자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대동제 사업은 본예산에서는 4천9백만원 선이었는데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로 사업비를 3천5백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취지는 외부 연예인 초청을 줄이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서 본예산을 대폭 줄였는데 학생회의 요청에 의거해서 예비비로 3천5백만원을 늘려

< 간서명 란 >

의 장



서 8천5백만원과 법인에서 들어온 2천만원 포함해서 1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2011년도에 썼습니다. 2012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예산보다 감액시켜 예산 편성을 하자고 제안을 했으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책정을 해달라고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2009년도에는 어떠했습니까?

예산팀장 조경숙 : 2009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2010년에 대폭 줄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경숙 : 네 그렇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학생들 입장에서 학교 대동제를 할 때 비싼 돈 주고 연예인을 불러와야합니까?

평의원 임정민 :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연예인 부르자고 돈을 증액 시켜달라고 한 부분이 아닙니다. 작년의 축제를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열기구 띄우는 것도 하고 저희들은 많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열기구 하나가 큰 마스크드였지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럼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다양한 행사를 위한 비용이지 연예인 부르는데 쓰는 돈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연예인도 부릅니다. 안 부를 수는 없습니다. 연예인 부르는 돈이 비중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행사도 하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연예인을 부르는데 얼마의 돈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공론에 붙여야 적절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좋지만, 다양한 문화공연은 되지만, 그것이 꼭 유명 연예인일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의원 임정민 : 일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축제의 마지막 날은 인디밴드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평의원 임정민 : 학생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도서관 예산은 줄이면서 연예인한테 돈이 가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학생활동은 계정 항목이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예산팀장 조정숙 : 학생행사지원비입니다. 다른 것을 많이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5천8백만원밖에 줄인 걸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까 늘린 예산 때문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장학금을 보면 교외장학이 줄어들고 교내장학이 늘어났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교내장학의 재원은 기금에서 빼는 부분이 얼마이고 당해 연도 등록금에서 충당하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잘못하면 기금을 빼먹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지금 12쪽 보시면 교외장학금은 학부의 경우 1억8천7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교외장학금은 1억8천7백만원 줄어들고 교내장학금은 늘어납니다. 학부가 많이 늘어나는데 3억6천9백만원은 장학기금을 빼서 쓰는 것인지 올해만 놓고 보면 장학기금 적립액보다 빼서 쓰는 것이 많은 것인지 그러면 결국엔 곳간 빼먹는 상황이 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교과부가 장학금 유형1과 2를 만들었습니다. 1조7천 정도인데 그 중에서 8천 정도를 유형2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는 것이 학생들이 7분기까지 등록을 마치면 저희학교 같은 경우는 50%는 등록을 합니다. 신입생을 빼면 50% 조금 넘고 포함하면 50% 조금 안되는데 그 정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유형1은 무조건 나눠주는 것이고 유형2는 학교가 기준을 정해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게 배정을 할 때 등록한 학생 수에서 얼마만큼 인하였는지 교내장학금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따라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내장학금을 가중치 0.3을 곱하고 인하는 1을 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를 인하를 한 것입니다. 매칭입니다. 인하를 많이 안하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고대가 2% 인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받는 돈이 적어집니다. 그 대신 고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장학금은 일회성이 아니겠습니까? 등록금은 일회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것보다 높게 3%로 간 것입니다. 그 대신에 교내장학금을 일시적으로 늘린 것입니다. 그래야 학생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끔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아들 수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저는 스카이가 2% 줄이고 지방대학이 5% 줄이니까 우리는

< 간서명 란 >

의 장



중간 쪼해서 3% 줄인 건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게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교내 장학금을 증가를 시켜서 그것을 맞추려고 합니다. 사실은 등록금을 인하하면서 장학금을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정부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감가상각률은 정률로 표기가 된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감가상각률은 정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학교가 정률이나 정액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정한 액수입니까? 등록금 수입대비 3.78% 잡으셨는데, 이것이 정액 베이스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취득가액의 40년 감가상각 금액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럼 maximum을 잡으시는 겁니까? 법이 허용하는 maximum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법이 대체 원가 개념이 아니고 처음에 했을 때 하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적립해서는 건물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항의를 하는데도 교과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변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감가상각비는 굉장히 밀돌고 있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건축비에 해당하는 돈을 외부에서 끌어오거나 재단이 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축비가 모자란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돈을 등록금으로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전입금을 더 받고 수익 사업을 하든지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대학의 패러다임이 shift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의원 윤성승 : 잘 몰라서 그러는데 취득가액을 40년 균등상각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인데 현재는 법에서 정하고

< 간서명 란 >

의 장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예산팀장 조정숙 : 저희가 적립하는 건축기금의 총액은 학부 등록금의 재원에 의한 총액이 아니라 특수대학원에서 적립하는 portion도 다 들어가 있고, 또한 시설 기금 이라고 해서 기부금 유치를 하겠다는 6억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평의원 이재호 : 모두 다 합쳐서 43억이라는 것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등록금회계 재원으로 43.2억원이고, 기금회계 재원으로 7.55억원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기금회계 7.5억원 넣는 것 중의 6억원이 건축기금입니까?

예산팀장 조정숙 : 네 시설기금과 이자부분이 포함된 건축기금입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가 1천6백억짜리 본교 예산은 마쳤는데 4659억 규모 병원 예산은 못 다루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간사께서 저희가 논의했던 안건들 간략하게 요약해주십시오.

평의원 이홍평 : 의장님, 처장님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경영대학원조사위원회 꾸려서 조사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조사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희로서도 경찰에서 질문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질문 중의 일부는 저희 기획처가 대답해야할 부분은 하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은 조사위원회에서 합의를 해서 2월 달까지는 조사위원회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집단의 싸움으로 될 수도 있고 해서 편을 들기 보다는 저희는 가급적 경영대학원 전체를 놓고 경영대학원이 돈을 잘 버는 Cash Cow 중의 하나이지만 반대로 돈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rule이나 이런 것들을 방만한 것이 있다면 고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름대로 지적하고 하는 작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마무리 되는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기획처장 김민구 : 그것이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 59 -

의장 강명구 : 몇 분이 교수회가 이 사건을 맡아주실 것을 부탁을 했는데 저희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처장 퇴장)

의장 강명구 : 팀장님 정리되셨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승권 : 강명구 의장님과 조중열 부의장님이 만장일치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팀장님 그런 것 말고 요구한 사항이 약속한 사항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승권 : 알겠습니다. 교원대표 대학평의원 선출방식 개선요청을 공식적으로 법인에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구성은 새로 구성된 분들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국제학사 진행과정은 그때그때 보고를 해달라는 말씀과 그와 더불어 설계와 시공이 있는데 교수회 혹은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학교측에서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크게 결정하신 사항이 이것입니다. 캠퍼스플라자 임대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원은 중단이 되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결론을 내시고 끝내시는 것이 어떨지 생각이 됩니다.

의장 강명구 : 일단 본교는 끝마쳤으니 가시고 저희는 남아서 비공개로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을 간사님이나 이재호 교수님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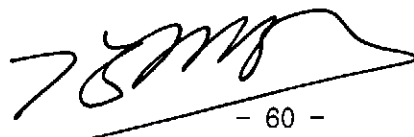
간사 김승권 :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시설 중에서 과거에는 서울건축에서 설계를 도맡아 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너무 건물이 천편일률적이어서 설계회사 변경을 시도해서 나온 것이 신학생회관과 종합관은 설계회사가 서울건축이 아니라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의장 강명구 :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4~5분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한 가지만 더 여쭙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 간서명 란 >

의 장



- 60 -

간사 김승권 : 프로세스가 내일 교무회의 자료로 올라가고 2월 17일에 법인 이사회에 들어가고 그다음 교과부로 가게 됩니다.

평의원 이재호 : 교무회의에서 자문을 받은 부분만 상의를 하십니까?

간사 김승권 : 현재 교무회의에 안건은 다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평의원 이순일 : 자료가 부족해서 자문을 못 한 것이 보고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펀드 건이 있었을 때, 결국은 자문을 못 받은 상태로 자문의견서가 없는 상태로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은 없는데 겉에는 있는 것처럼 표지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사학진흥재단에 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간사 김승권 :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평의원 이순일 : 자문을 못 받았다는 것을...

간사 김승권 : 그건 회의록에 남기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내일 회의인데 회의록이 나오기 전이니 내일 교무회의 하실 때 대학평의원회에서 이와 같은 사유로 의료원에 대한 2012년도 예산안 자문을 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김승권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의원 윤성승 : 보통은 안건을 표기할 때 학교예산 교비회계에서는 자문을 받았지만 병원회계는 자문을 못 받았다고 처음 안건 목차에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승권 : 알겠습니다. 내일 교무 회의 때 명시하겠습니다.

평의원 윤갑희 : 다 끝난 것 같은데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의 홍보비는 줄어 들고 특수대학원의 홍보비는 늘어났는데 학교의 레벨을 업 시키는 것은 학부생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특수대학원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학부 홍보비를 올려야지 특수대학원 홍보비는 잔뜩 올려놓고 학부 홍보비는 깎고 이런 것이 라면 정말 대학이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상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의원 이순일 : 뼈아픈 지적입니다. 특수대학원은 왜 하느냐면 아주대학교를 좋게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수대학원은 돈을 버니까 거길 위한 비용은 써도 되는데 우리가 번 돈이니까 아주대학교에서 발생

< 간서명 란 >

의 장



- 61 -

하는 비용은 거기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뜻 나서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만 형성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특수대학원의 관련된 교수님들이나 학장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마찬가지로 아주대학교 교수 분들 아니십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내부에서 얘기를 해서 바로잡고 가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의원 이순일 : 그것은 리더십의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오버헤드 비율이 30%라는 것이 15년 전에 시작된 것인데 아직도 30%인 것이 과연 적절한가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구비에서 내는 오버헤드가 10%에서 20%까지 올라가고,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제 24%까지 올라왔습니다.

평의원 이강준 : 저는 특수대학원에 있으니까 특수대학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가급적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기획처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져갈까 그동안 많이 노력했습니다. 홍보비가 늘었다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평의원 윤갑희 : 밖에서 볼 때 저희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대학교라는 한 집단의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강명구 : 뼈아픈 지적입니다.

평의원 이강준 : 기획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효과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효과를 바라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홍보비가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오히려 홍보비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쓰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의 시스템에서 또 어떤 노력들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의장 강명구 : 윤갑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뼈아픈 지적입니다.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할 얘기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끝내기 전 5분간 비공개 회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승권 : 저희들 잠깐 나갔다가 끝나면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약 5분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다.]

< 간서명 란 >

의 장



의장 강명구 : 그럼 일단 거기서 다른 견해가 없는 한 자문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그럼 이러이러한 형식으로 리스트를 내지 않으면 자문할 수 없다라고 정리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의장 강명구 : 내일 교무회의가 있으면 자문의견서가 전달이 되어야 하니 작성에 대해서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팀장님, 내일 자문의견서가 올라가야 됩니까? 의료원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냐하면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문을 할 수가 없다. 자문불가 이유를 저희가 말씀드린 형식으로 첨부하여서 교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까지 의료원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자료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일 교무회의 하시고 저희가 다시 한 번 만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불가 문구를 저한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우리가 작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승권 : 자문의견서는 평의원회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의장 강명구 : 그럼 저희가 본교 건은 짚막하게 하고 의료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문의견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하도록 합시다. 이재호 교수님 짚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의원 이재호 : 위임을 해주시면 작성해서 의원님들께는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간사 김승권 : 그럼 의료원과는 저희가 따로 얘기할 것 없이 자문의견서 받아서 넘기겠습니다.

평의원 이재호 : 의료원 쪽에도 역시 그 내용은 보내겠습니다.

의장 강명구 : 저희 의사결정을 의료원에는 알려주십시오. 알려드리면 거기서 받아야겠다고 하면 저희가 한 번 더 모여서 하겠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간서명 란 >

의 장



<첨부: 대학평의원회 예산관련 자문의견 종합>

2011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12학년도 본예산에 대한 대학평의원회의 자문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원에 대한 자문의견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자문을 위해 의료의 수입 중 임대사업수익 내역(상호, 위치, 면적 포함)과 이 중 법인 전출금 해당 항목을 표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의료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평의원회는 이에 상호 없이 위치, 면적, 임대수익 액수, 법인 전출금 해당 여부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으나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칙 10조(출석 및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이 역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기에 의료원에 대한 자문이 불가함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의료원이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면 자문을 수행할 것임을 밝힙니다.

2. 교비예산에 있어 수입의 감소로 인한 건축 재정 편성의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건축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도서관구입비를 2011학년도 대비 1.3억원(17.7%) 감액한 것은 대학의 본령을 상기할 때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 다른 예로 전체 홍보비 예산은 3.4억원(20.0%) 감액한데 반해 특수대학원 입학홍보비는 1.4억원(33.6%) 증액하였습니다. 특수대학원이 독립운영부서임을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학부의 중요성이 감안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비춰집니다. 대학의 위상은 결국 학부의 수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는 특히 교외 평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3. 특수대학원의 overhead 비율이 처음 30% 내외로 정해진 이래 변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수대학원의 수익 추이와 대학의 재정형편을 반영하여 overhead 비율을 재조정하여 대학 재정에 대한 기여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을 권고합니다.

4. 국제학사 설립 등 발전계획, 캠퍼스 플라자 임대 등 재정 조달 계획과 같은 중요 사안들은 대학평의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지출에 있어 가장 큰 항목 중 하나인 건축비의 절감과 질 좋은 건물의 건설을 위해 입찰 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대 관련 건

< 간서명 란 >

의 장





축 수주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설계, 시공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6. 사용되지 않은 예산이 명시적으로 차기이월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일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요불급한 사업에 전용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전임교원선발 T/O가 이월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도 지정이월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7. 교비 추가경정예산 상 법인의 경상비 전입금 감소와 관련하여 감소 사실을 구두로 통보 받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전입금 관련 변경 사항을 문서로 통보 받도록 권장한 2010학년도 결산 자문의견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며 행정 처리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업무처리 방식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법인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2012년 1월 30일 아주대학교 대학평의회

< 간서명 란 >

의 장

